

세미나자료 2025-01

제1차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육아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일 시 > 2025. 4. 25(금) 10:00-12:00

장 소 >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주 최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5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육아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경쟁과 성취중심 사회에서 돌봄과 교육의 균형 찾기

- ❖ 일시 : 2025. 4. 25(금), 10:00-12:00
- ❖ 장소 :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 ❖ 프로그램

사회 : 이윤진 기획조정본부장

시간	내용
9:50 - 10:00	등록
10:00 - 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환영사 :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
10:10 - 10:20	참석자 전원 기념사진 촬영
10:20 - 10:35	발표 1 경쟁과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과 교육 - 발표자 : 나종혜 교수(한국아동학회 회장)
10:35 - 10:50	발표 2 공교육·돌봄과 사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전환적 대응 - 발표자 :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0:50 - 11:00	휴식
11:00 - 11:50	Open-Talk
11:50 - 12:00	폐회

CONTENTS

환영사

- ▶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

발표 1

경쟁과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과 교육

- ▶ 나종혜 교수(한국아동학회 회장) 1

발표 2

공교육·돌봄과 사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전환적 대응

- ▶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9

Open-Talk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4월의 막바지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육아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을 이 자리를
통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 기관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여 최근 3개월간의 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간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154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47.6%, 주당 참여 시간은 평균 5.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관재원 여부에 따라 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는 주당 3.7시간, 가정양육 유아는 15.2시간으로, 가정양육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조사는 미승인 통계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지만, 저희 연구소가 매년 수행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 시켜 본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저희 육아정책연구소 역시 육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의 증가 현상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취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영유아와 아동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교육’과 ‘돌봄’은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제는 그 해답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흩어져 있던 생각과 고민이 모이고, 다양한 의견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결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오늘의 논의가 더욱 깊이 있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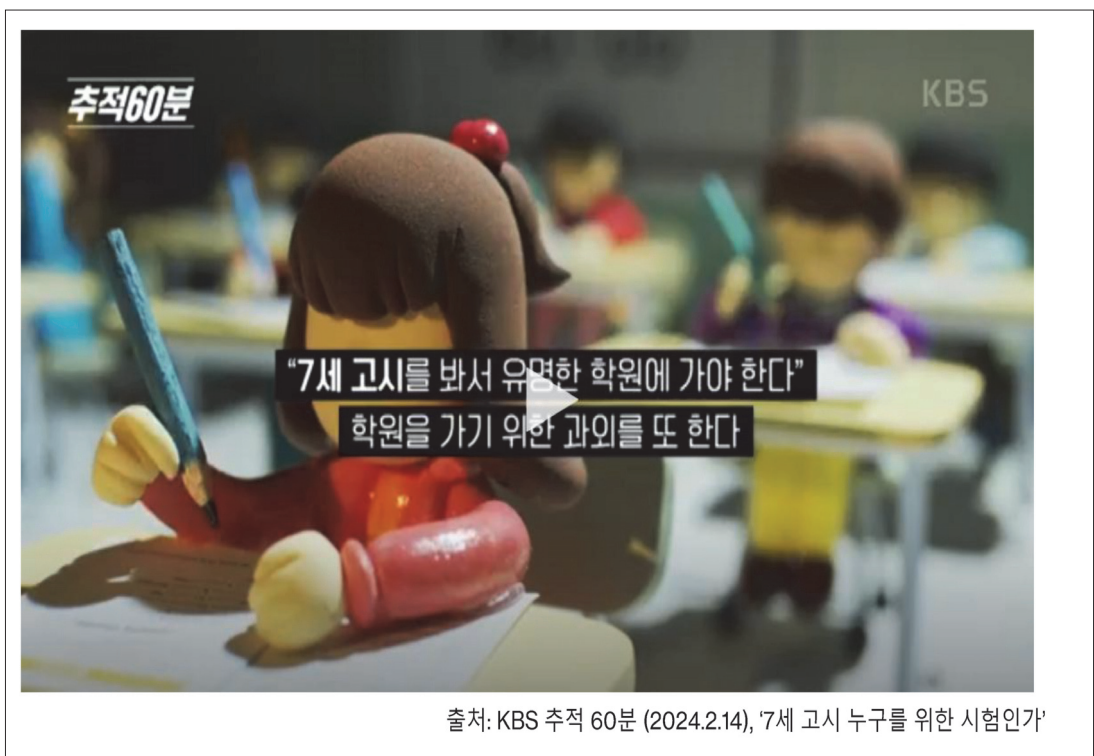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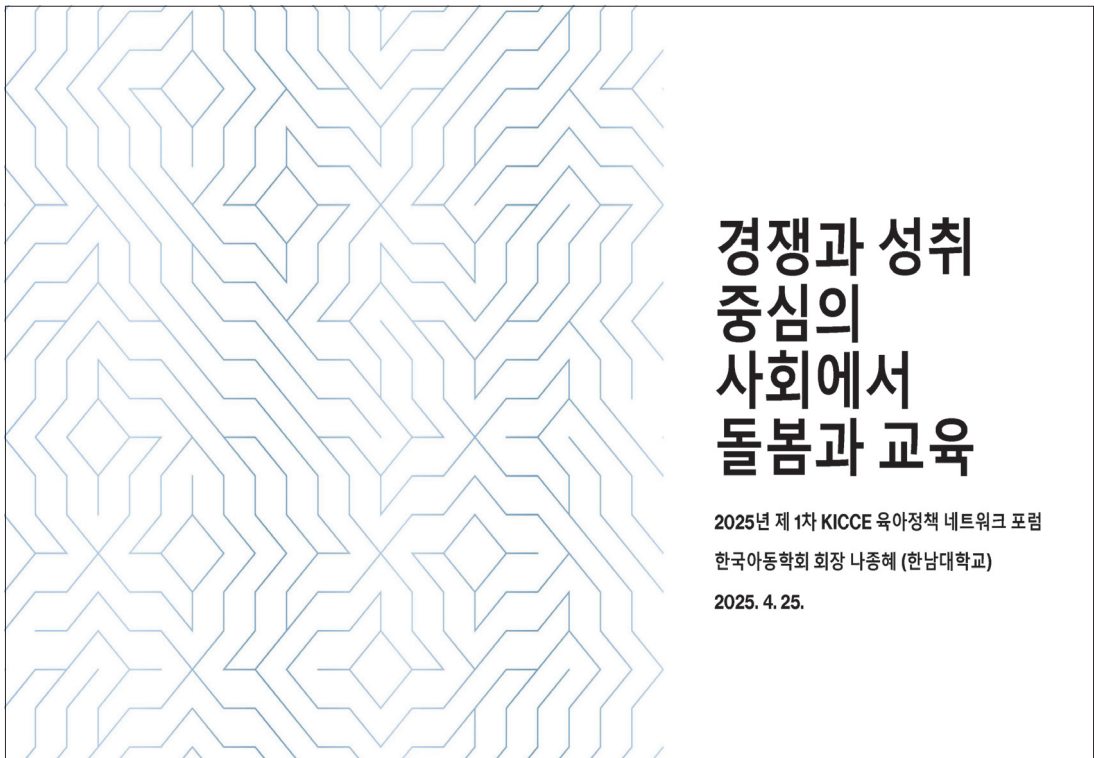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육아정책연구소장 **황 옥 경**

발표 1

경쟁과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과 교육

나종혜 교수
(한국아동학회 회장)



국제 : 국제일반

"6세 미만 절반이 학원 다닌다" 외신도 놀란 韓사교육 광풍

중앙일보 | 입력 2025.03.16 21:40 업데이트 2025.03.17 10:37

서울경제

"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외신도 경악한 '7세 고시' 결국

입력 2025.04.17. 오후 1:38 · 수정 2025.04.17. 오후 3:42 기사원문

남윤경 기자

16일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 인권위 앞에서 '아동 학대 7세 고시 폐지' 기자회견



주간조선 '4세 고시'가 만든 영유아 사교육 천태만상

의대를 향한 로드맵?... 영어유치원이 시작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하나"... '월 154만원'

2019년과 2023년 사이 영어유치원과 일반유치원 수 변화

- 영어유치원: 615곳 → 842곳 (36.9% 증가)
- 일반유치원: 8837곳 → 8441곳 (약 4.5% 감소)

문화 문화일반

한겨레

이수지 뺨치는 현실고증...맘카페 난리 날 대치동 '7세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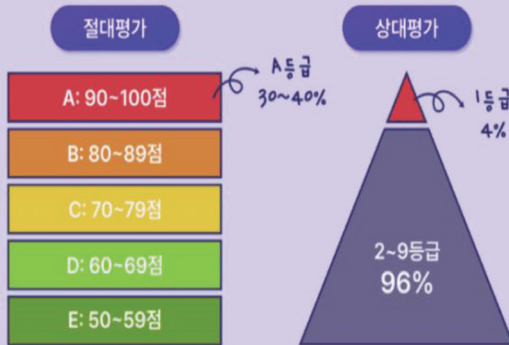
'어린 자녀 학원 라이딩' 소재 드라마 인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토익 시험"
고3 못지않은 영유아 사교육 현실 보여 줘

김민재 기자

수정 2025-03-13 16:59 등록 2025-03-12 15:09

절대평가 vs 상대평가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상대평가라는 것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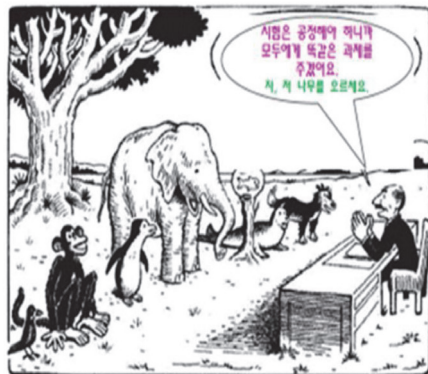


다른 학생 점수와 상관없이
본인의 점수가 중요!

다른 학생 대비 잘
했는지가 중요!

출처: 설텍 <https://blog.seollab.com/>

경쟁사회: 줄을 세우고,
순위를 매기고, 기준을 들이댐
기준은 성취 중심, 결과 중심, 속도 중심



행복 vs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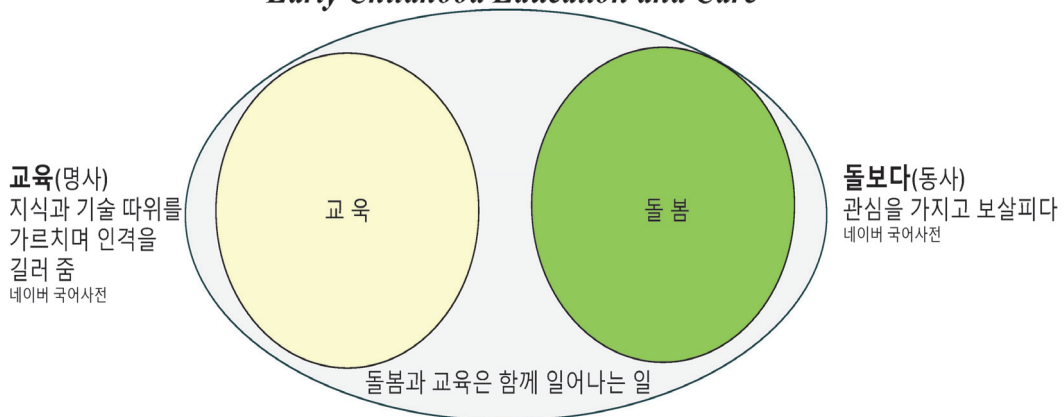
왜?

- 가족 구조의 변화 (맞벌이 증가, 핵가족화) → 돌봄의 외주화, 전문화
- 급변하는 사회 - 노동시장 불안정성, AI/디지털 환경
- 교육불안 → 사교육의존 심화
 - 사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남들 다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교육 ➤ 돌봄

이제까지 문제는...정책은 나뉘고, 기관은 제각각, 부모는 불안하고, 아이는 지친다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202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Learning begins at birth, and care is education**” 배움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며, 돌봄은 곧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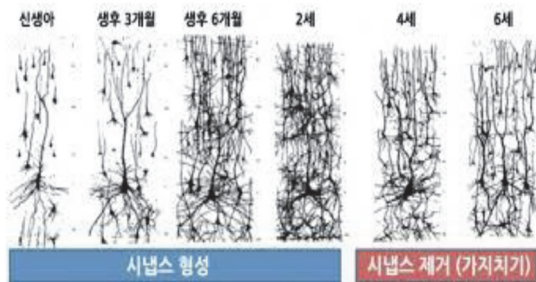
UNICEF (2019). *A World Ready to Learn: Prioritiz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 - 아이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체계

교육을 받을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발달권

학문적 근거

- 영유아기 뇌 발달 원리
- 정서적 안정이 인지 발달의 전제



안정감, 호기심

도파민 활성화,
창의성 자극

또래 상호작용 활발

자기조절력,
공감능력, 탐색 동기

놀이중심환경
→ 뇌발달

VS

훈련중심환경
→ 스트레스

불안, 긴장

코르티솔 증가,
기억력 저하

사회적 고립 위험

회피, 완벽주의, 실패 불안

영유아의 속도와 잠재력 존중

아동중심
→ 영유아이해

“줄자나 체중계처럼 유아의 행동을 잴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유아의 행동은 하나의 기준으로 잴 수 없다.

우리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 송아지의 성장과정을 안다. 그래서 애벌레에게 날아보라고 하지 않고 송아지에게서 젖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발달과정 중 유아기는 특별한 시기이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유아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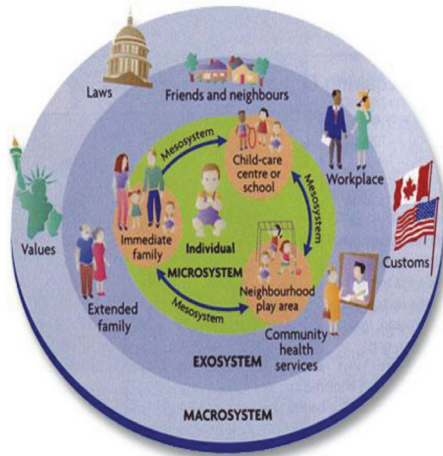
유아는 성인과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유아가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성인과 같이 생각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산이다.

유아가 제일 잘 하는 말은 “몰라요” - 실제로 유아는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를 수 있다.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도 이를 모른다면 문제가 생긴다.

유아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교사로서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서를 모아야 한다.”

Cohen et al. (2016)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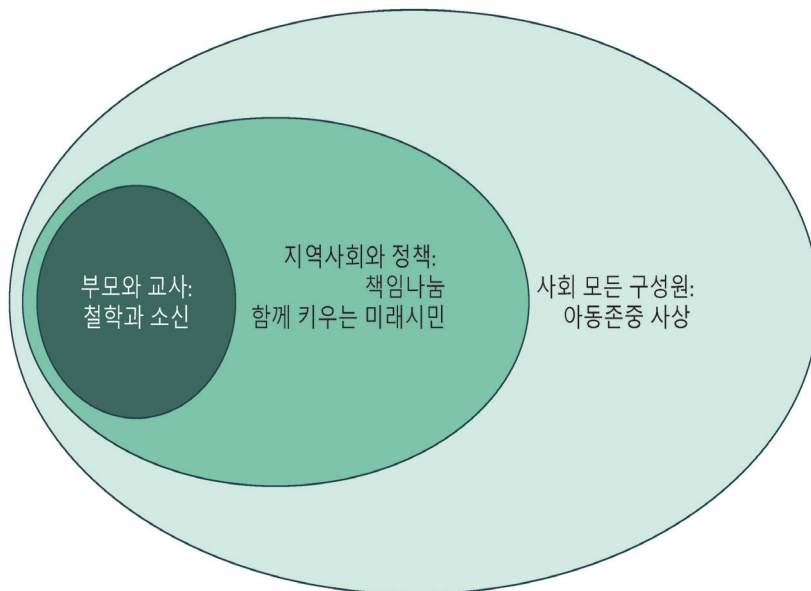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requir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families, teachers, communities, and policy makers.”

– UNICEF, *A World Ready to Learn*, 2019

유아의 발달은 가족, 교사, 지역사회, 정책 결정자를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Figure 1.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Berk & Roberts, 2009, p. 28)

아동 돌봄과 교육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다



우리가 공감하는 기본원칙

1. 교육과 돌봄은 하나다
2. 아동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
3. 미래 시민은 전 국민이 함께 키운다



사회 차원의 변화 필요

아이가 자라는 속도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 돌봄과 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



소통의 중요성

참고문헌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D. H., Stern, V., Balaban, N., & Gropper, N. (2016). *Observing and recording the behavior of young children* (6th ed.). Teachers College Press.
- KBS. (2024, February 14). *추적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TV broadcast]. Korean Broadcasting System.
- OECD. (202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ducation/school/startingstrong.htm>
- UNICEF. (2019). *A world ready to learn: Prioritiz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https://www.unicef.org/reports/world-ready-learn-2019>

발표 2

**공교육·돌봄과 사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전환적 대응**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공교육·돌봄과 사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전환적 대응

경쟁과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과 교육의 균형찾기

- KICCE 상반기 육아정책네트워크 포럼 -

2025. 4. 25.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 (총액) 3개월(7~9월) 간 전국 유아 172만 1천명 사교육비 총액 8,154억원 추산 (※연간 약 3조 2천억원)
- (참여율·시간) 사교육 참여율 47.6%,
 - 2세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 800만원 이상 가구 62.4%, 300만원미만 가구 29.5%로 소득수준별 격차
- (참여시간) 참여유아 기준 주당 참여시간 5.6시간 (2세이하 1.8시간)
- (1인당)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3.2만원 (※ 전체유아 1인당 15.8만원)
 - 2024년 영유아가구 소득 평균 600만원 가정 시, 소득 대비 약 5.5% (전체 유아가구 소득 약 2.6%)
 - 영어유치원 월 154만원, 놀이학원 116만7천원, 예·체능 약78~76만원.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 7배
- (수강목적) 예체능 및 기타 과목 -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60.3%)
 - 일반과목 및 논술과목 - 입학 준비(67.6%) 비중이 높음.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4.3.24)

유아사교육비시험조사 주요 결과

통계청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통계 대량방식으로 실시(국가미술훈계)
 ●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

2024년 7~9월 6세 미만 13,241명 대상 조사

사교육비 이용 총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4.3.24), 통계청, 연합뉴스(24.3.13)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2023.6)

- 5년간(2017~202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0.9% 급증
-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정책
 -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
 -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 및 미래 '유보통합' 모델

㉟ 초·초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놀음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능 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세워락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㉟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초등 입학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용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트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23.6.26)

공교육 vs. 사교육

- 공교육: (국가 주도) 보편성, 시민교육, 통합/균율
- 사교육: (민간 주도) 선택성, 계층 상승 도구
- 신자유주의 등장 등 경쟁 중심 교육 확산
- 교육 = 투자 → 사교육 시장의 확대
- ◀ 교육 불평등 심화, 시험제도 위주 획일화 된 역량
교육의 상품화 문제 심화

5

육아정책과 저출산 대응, 사교육 증가

- 저출산 대응 및 육아정책은
‘일가정 양립’과 (비용/시간 중심) ‘양육부담 완화’에 초점
-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세
 - 돌봄(서비스)과 시간 지원 확대되었으나, 교육적 대안 부족
 - 공교육의 질적 보완 및 다양성 부족 - 사교육 의존도 ↑
 - 맞벌이가정은 사교육을 보험, 정보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활용
 - 사회적 기대와 경쟁 환경이 사교육비 지출 자극
 - 광의의 돌봄과 자녀의 사회적관계, 다양한 활동/경험에의 요구 포함

6



영유아가구(자녀양육가구) 특성과 서비스 이용 변화

- 전국 일반가구 소득 평균(2024년 4분기 5,215천원) 대비 영유아가구 소득수준(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560만 1천원)이 높음.
- 영유아부모의 학력 및 맞벌이가구 비율(모 취업률) 상승세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

- 영유아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2023년 28.8%, 영유아 1인당 양육비 비중 15.6%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135만 4천원, 1인당 월평균 양육비 80만 7천원
- 기관 이용/비용: 2023년 어린이집 50.0%/월 7.6만원, 유치원 27.0%/13.3만원, 반일제이상기관 125.1만원(급증)
- 기관이용 영유아 특별활동 이용: 어린이집 73.9%로 꾸준히 증가
- 시간제교육 이용: 단시간학원 23.1%로 증가/월 평균 19.7만원, 방문형 학습지/교구활동 약 12~15%/9만원대 (한글·수학 위주), 문화센터 10.4%/6만원, 비방문학습지/교구활동 11만3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 20.5만원, 교육용 온라인콘텐츠 3.2%/12만 5천원; 키즈카페 이용률 55.2%/월평균 3회. 시간제교육 미이용 60%이상
- 아이돌보미 2023년 32.8% (크게 증가). 민간육아도우미 8.4~8.7%, 조부모/친인척돌봄 7.5%로 감소

자료: 2023년 KICCE 소비실태조사(최효미 외, 2024)



7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

- 사교육 유형/개수, 참여도에 따라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이

[긍정적 영향]

- 문제행동 및 과잉행동 점수 감소
- 신체·예술 활동의 경우 성실성, 집중력 향상 일부 확인
- 일부 초기 학습수행 능력 향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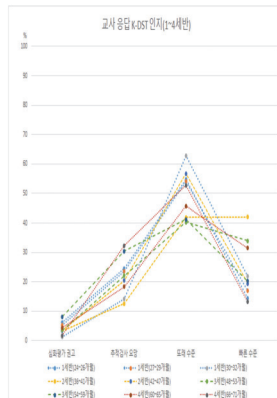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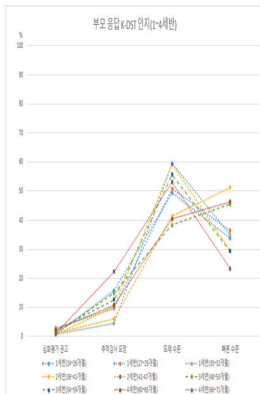
[부정적 영향]

- 학습 사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 저하
- 사교육 개수·강도↑ - 스트레스, 불안, 위축↑
- 언어·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등 인지발달에 유의미한 영향 없음

자료: 김은영 외(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8

포스트코로나 아동발달 현황



- 부모-교사가 응답한 K-DST 결과:
 - 심화평가권고+추적검사요망 연령·영역별 10~20%내외
 - 특정 발달영역에서 또래보다 느린 특성이 아동발달 전반으로 봤을 때는 지연된 것이 아니며,
 - 또래보다 느린 수준을 보인다 하여도 발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타남.
 -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특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남.

[그림] 교사-부모 응답 K-DST 인지(1~4세반)

자료: 최윤경 외(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추적 연구(I)

9

영유아가구 서비스 이용 및 사교육 효과의 시사점

- 사교육 비용 및 격차 증가세 지속: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 2배 이상 상승 등
- 교육/보육비가 여전히 가장 큰 양육비 지출/부담 항목
- 돌봄 수요 확대 및 변화 양상: 예)조부모 의존→아이돌보미 이용 증가
-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 약 30%
- 사교육 효과는 특정 유형(예체능, 신체)과 적정수준 이용에서 발생
- 과도한 학습 중심 사교육은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 가능
- 발달의 유의한 효과는 사교육 '유무'보다 '내용/방식'에 따름.

◀ 교육·돌봄 방식과 구성, 개별화/맞춤형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

참조: 김은영 외(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최효미 외(2024) KICCE 소비실태연구

10

현행 사교육에 대한 아동발달 관점 고찰

- 미래 핵심 역량: 창의성, 협업, 윤리적 사고, 메타인지
- 지능: IQ를 넘어 EQ, CQ(창의지능), AQ(역경지수),
복합적 문제해결력 등 다양한 역량
- AI(인공지능): 제 환경-관계와의 협업/공진화 가능성
- 교육(예:학습지식 습득 위주)과 역량/지능 발달 간 불균형성 극복
 - ◀ 정보 전달이 아닌, 사고/조정/연계 확장의 경험 플랫폼

자료: UNESCO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Economic Forum: Future of Jobs Report

11

사교육에 대한 정책 대응력 제고 지속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 인구축소 하 인프라 확장·유지
 -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놀이중심 특성화활동 제고
- 교육·보육·돌봄 환경의 질과 선진화
 - 교직원 역량 제고 중요
- 다양한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돌봄의 설계
- 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 부모 대상 정보 제공 강화

12

[육아정책의 사회적 접근 역량 강화]

- 다양한 삶의 방식과 발달 특성에 대한 존중 및 체계적 지원
- 학력중심, 경쟁위주 교육력 지향 탈피
 - 공공성-다양성의 균형과 조화
- 돌봄/시간 지원은 공교육 정책과 함께 설계
 - 고용·노동, 입시, 사회적 가치, 육아가치관 등 구조적 변화와 연계
- 인공지능(AI) 등 변화하는 환경과 역량(자연지능)에 대한 인식 반영 및 선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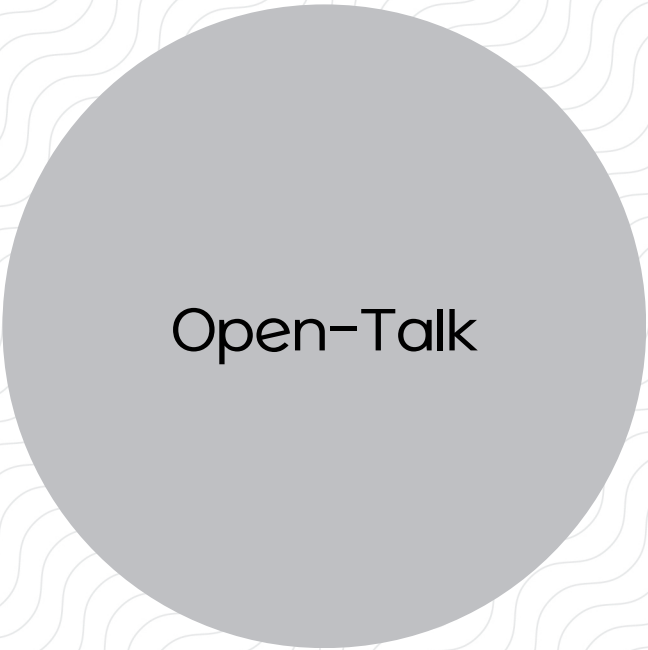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24.3)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 교육부 보도자료(2023.6) 사교육비 경감 대책
- 김은영 외(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2024.4분기)
- 최윤경 외(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추적 연구 (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외(2024)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14

감사합니다





Open-Talk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MEMO

MEMO

제1차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육아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